

열린사회의 담

The Wall at Society Ouverte

동정근 /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Dong Jeong-Geun

요즘 담장 없애기의 일환으로 관 청사들이 시범으로 담을 헐고 그곳에 조경을 하여 도시의 분위기를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최근 강남의 한 고등학교도 담을 헐고 식수로 바꾸어 가로 분위기를 넓고 밝게 바꾸고 있다. 관 청사 뿐만 아니라 우리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도 담을 없애고 친근한 골목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대륙성기후로 여름에 전국에서 가장 더운 대구에서는 담을 없애고, 나무심기를 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도시녹지를 넓혀 도시온도를 낮추었다는 언론 보도를 들으며, 인간에 보호받는 지리환경의 처량한 신세에 대한 연민과 시민운동의 막강한 힘과 함께 도시녹지의 중요성을 느끼게 한다.

담 하나 없어 졌는데 길의 풍경이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담은 나와 가족, 그리고 단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방어수단이다. 하이데커는 '인간은 세상에 내 팽겨져졌다'고 말하고 있다. 세상이라는 험악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높은 담으로 강력한 물리적인 방어수단을 강구했으며,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공격적인 영역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이 모여사는 동네 일명 강도촌이라고 불리는 마을은 높은 축대와 담으로 외부와 차단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감추려 하고 있다. 과밀한 도시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높은 담을 쌓아 올려야하고 철망으로 창문을 막아 스스로를 보호하지만 화재시 대피하지 못하고 화를 당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다. 최근 태국호텔에서의 화재시 대형참사의 원인도 창문에 설치한 철망이 그 원인이었듯이 외부를 막음은 자신의 퇴로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은 보이는 담보다 보이지 않는 담이 더욱 강한 영역성을 갖기도 한다. 외국의 주택단지에서는 보이는 담은 없지만 도로와 사적영역이 지켜지고 있으며, 잔디의 크기로 옆집마당과 구별하고 있다. 거실의 전망창(picture window)을 통하여 감시하면서 영역을 확보하고 옆집과는 잔디와 정원을 가꾸면서 상호 교감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은 넓은 땅에서 외부와 충분한 방어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집도 새로 개축하면서 담을 없앴다. 좁은 골목은 넓어졌고 길에 노출된 조경은 동네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몰래버리는 쓰레기와 훼손되는 조경과 주차문제로 갈등을 느끼지만 담을 쌓고 관계를 끊었던 개축전과는 다르게 우리마을을 이해하고 이웃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음의 역사라는 책에서 인간은 원시인에서 현대인으로 진화하면서 생각의 변화는 사회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모여서 사는 이익을 찾고 모여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이 인간마음의 진화과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인의 마음도 사회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다. 한정된 지구호에 승선한 인간의 수는 계속 늘어만 갈 것이고, 이런 과밀한 지구호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중대 과제는 과학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여 사는 새로운 방법들에 적응하면서 진화하는 것이다.

또, 인간은 시행착오에 의해 발전하고 진화한다. 그 발전과정 중에 창조적 진화를 위해서는 열린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닫힌사회는 본능에 의한 습관이나 제도로 개인을 구속, 억압하고, 밖으로는 배타적이며 자위와 공격의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 폐쇄사회이다. 원시사회나 문명사회도 지나친 이기주의에 의한 가족보호, 지연, 학연으로 타자를 선별하여 배척하며 거부와 투쟁을 벌인다. 이러한 사회의 결합원리는 정지된 관습과 제도에 의해 개인을 사회에 복종시키려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비인격적인 닫힌 도덕인 것이다.

이에 반해 열린사회는 적대적인 폐쇄성을 초월한 무한의 개방적 사회로서 전 인류를 포용하려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결합원리는 관습과 본능에 의한 위압과 명령이 아니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함께 끊임없이 전진, 향상하려는 인류애의 도덕, 즉 열린 도덕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베르그송은 이러한 인류애를 결합원리로 자신의 이익에 바탕을 둔 정적이고 정체적인 현실적(real) 닫힌사회로부터 '생명의 비약'에 의해 동적이고 창조적인 이상적(ideal) 열린사회로의 전환이 발전된 인간으로 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닫힌사회 대표적 현상은 담을 쌓는 것이다. 남북갈등의 상징인 휴전선과 같이 보이는 담도 있지만 요즘 벌어지고 있는 남남갈등과 지역간 혹은 매체간 그리고 시민단체와 시민간의 갈등은 보이지 않으면서 강한 방어 벽을 치고있는 것이다. 건축계에서도 삼 단체간 혹은 주변 집단들간의 보이지 않는 담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가진 자의 간교함과 목소리 큰 사람의 영웅적인 외침에 의하여 닫힌사회로 가면서 스스로의 모순에 봉착하게된다. 개방된 사회는 정적인 것 대신에 동적, 진보적인 것을, 확실성 대신에 개인에 대한 최대한의 다양성과 자유를 수용하면서 창조적 진화를 하게된다. 담은 단순히 이곳과 저곳을 차단하는 단순한 물리적 요소이지만 담에 의해서 파생되는 심리적인 사회문제는 인간의 진화에까지 영향을 주게된다. ㉮